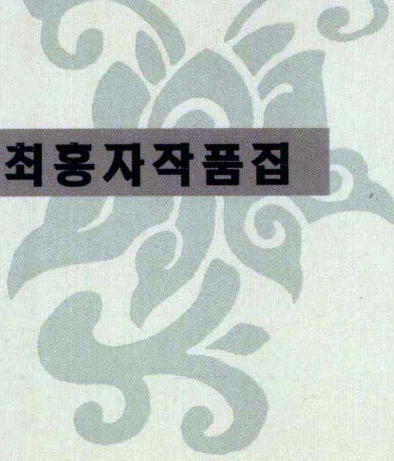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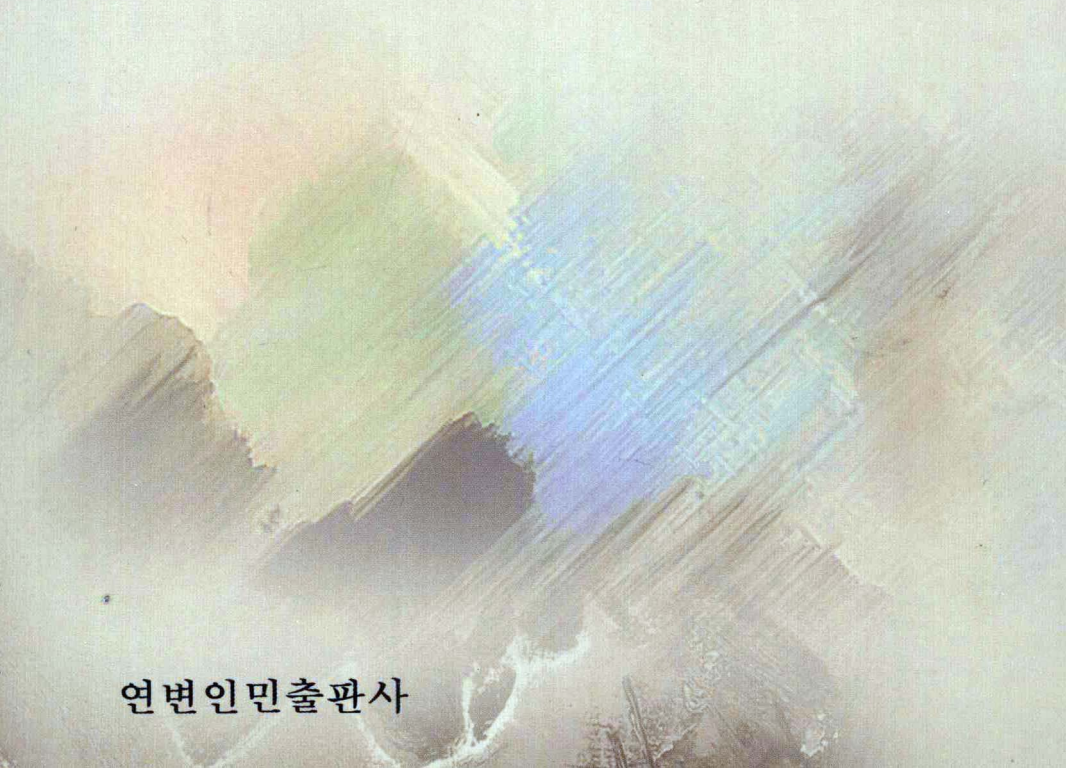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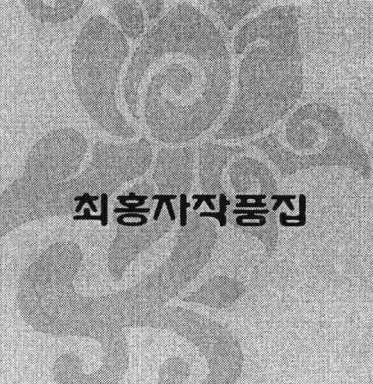


최홍자작품집

성 쌓고
남은 돌도
쓸모가 있다



연변인민출판사



최홍자작품집

성 쌓고 남은 돌도 쓸모가 있다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방복순
책임교정: 남금월
기술설계: 장학봉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老骥伏枥尽余热: 朝鲜文 / 崔弘子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1
ISBN 978-7-5449-0494-0

I. 老… II. 崔… III. 文艺—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06332号

老骥伏枥尽余热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 字数: 18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94-0 (民文)

版次: 2009年1月第1版 2009年1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서 문

리상각

최홍자녀사가 작품집을 출판한다.

서문을 쓰려고 필을 드니 50여년전 학창생활이 어제일 같이 새롭게 떠오른다. 대학 1학년을 다닐 때 나는 반장직을 맡았다가 한 학기가 지나자 립장이 모호한탓으로 나떨어졌지만 부반장인 홍자씨는 왜 나를 따라서 부반장직에서 나떨어졌을까? 아마도 그녀가 회의때면 꿀먹은 병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발언을 하지 않은탓이었을것이다. 그까짓것은 아까울게 없지만 학창시절을 추억하면 이런 일부터 머리에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다.

그런대로 우리는 학교에서 문학창작활동에 열을 올리였다. 홍자씨는 대학 1학년때(1958년) 가요 “봄이 왔네”를 《연변문학》지에 발표했고 이어 또 자신이 작사, 작곡한 가요 “내 고향의 자랑”을 발표했다. 이건 기적이 아닐수 없다. 그때 우리는 작곡 같은건 귀신같은 사람이나 하는것인줄 알았는데 이런걸 악기 하나 갖지 못한 홍자씨가 해낸것이다. 그녀는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잘 불렀다. 2003년에 작사, 작곡한 가요 “울지 마라 민둥산아”가 제2회 조선족동요창작대

잔치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단다.

그런데 우리 반 단지부 조직위원인 방학철이 홍자씨와 몰래 연애를 한줄은 썩후에야 알게 되었다. “4해”를 잡는답시고 우리는 무리를 지어 다니며 쥐꼬리 하나 만져보지 못하고 교외에 있는 방학철이네 집에서 이밥이나 먹어보라고 찾아갔다. 굶은 대학생들이 한 소래 밥을 다 먹고도 숟가락을 놓지 않으니깐 어머니가 또 이밥을 내놓았다. 그때 홍자씨가 방학철이네 집을 자주 드나들었는지 이 일을 두고두고 말한다.

바로 그 방학철의 어머니가 김일성수령님의 부인과 같이 부암동에서 항일에 나섰던분이다. 어머니는 95세를 일기로 장수하신분이다. 바로 이 작품집에 실은 “시어머니의 한세기”, “용서하세요, 어머니” 등 수필은 홍자씨가 시어머니를 쓴것이다. 시어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살이를 눈물겹게 썼다. 수필 “시들어버린 꿈나무”에서 쓴것과 같이 가난한 집에서 악기 하나 못 가진 신세인데 음악을 배운다는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작곡한 가요가 발표되었으니 천부적인 재능이라 할수 있다.

방학철이와 최홍자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20년이나 교편을 잡았고 그후 홍자씨는 연변교육출판사에서 10년 동안 교재편집으로 있었다. 방학철은 교육학원 교수, 권위적인 언어학자였다.

이 작품집의 수필들에는 최홍자녀사의 발자취가 력력히 그려져있다. 읽어볼 맛이 있고 생활의 진실이 글편마다 향기를 풍긴다.

최홍자녀사는 또 시, 시조, 가사를 많이 썼을뿐만아니라 작곡한 가요작품도 적지 않다. 실로 다면수이며 팔방미인이

라 할수 있다. 한몫을 파고 들어가지 못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처럼 문학과 예술의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솜씨는 놀라운것이다. “성 쌓고 남은 돌도 쓸모가 있다”는 수필에서 보여주듯이 홍자씨는 퇴직후에도 멀리 청도에 가 교편을 잡았고 부지런히 필을 날려 작품집을 출판하게 되었다. 박수갈채를 보내는바이다. 더욱 훌륭한 작품을 계속 세상에 내놓기를 바란다.

2008. 6. 29.

연길에서

차 례

제1부 수필편

- 옛 탐라국을 찾아서 / 3
조어대에서 / 9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 13
“예비교원” / 16
너희들도 늙을 때가 있으리라 / 19
바가지 / 22
부모가 바라는것은 / 26
그리운 “퇴봉” / 30
부끄러움과 부러움 / 34
작심삼일(作心三日) / 38
배풀며 산다는것은 / 41
시들어버린 꿈나무 / 44
성 쌓고 남은 돌도 쓸모가 있다 / 48
시어머니의 한세기 / 52
용서하세요, 어머니 / 59
시계 / 63
돈을 팔아 유감을 사다 / 66
억울하게 받은 심사 / 70
백년물만두인가 / 74

성 쌓고 남은 돌도 쓸모가 있다

제2부 시, 시조, 가사 편

시

- 홍매야, 하늘높이 날아라 / 79
무덤우에 핀 꽃 / 82
저수지의 황혼 / 85
축복을 받으세요, 어머니 / 87
출근길에서 / 90
빨래터 / 92
분배장의 판저울 / 94
어머니 시름 놓으세요 / 95
거울앞에서 / 97
봄아씨 오네 / 98
봄바람 / 99
설참 / 100
내가의 저녁 / 101
한생을 비취볼 거울입니다 / 104
행주치마 / 106
락수물 / 108
고드름 / 108
이슬 / 109
보습날 / 110
7색의 세계 / 111
망장천 / 112
금강산의 꽃 / 113
네가 바라는것은 / 114
인생은 오미자 같네요 / 116

그대여 아시나요 / 117
금열쇠 / 118
소원 / 119
그리워요 / 120
그대 / 121
서리 낀 아내 가슴 / 122

시조

인생살이 / 123
겨레의 정 / 125
우국지심 / 126
귀뚜라미 슬피 우니 / 127
서호 / 128
무지개 / 128
아껴 먹음이 어떨고 / 129
칠판 / 129
분필 / 130
흙이 아니다 / 130
갈망 / 131
소원 / 131
우려 / 132
폭포 / 132
인생 / 133
고무풍선 / 133
소낙비 되라 / 134
미워서 그리워서 / 134
뿌리깊이 박혔나니 / 135

성 쌓고 남은 돌도 쓸모가 있다

정으로 사랑으로 / 135
동청나무 / 136
담쟁이 / 136
나래 돋친 발걸음 / 137
인정 / 137
등지 / 138
황혼을 빛내보세 / 138
사향가 / 139
세월 / 139
추억 / 140

가사

봄이 왔네 / 141
아, 진달래 / 142
우리 함께 날아보지요 / 143
로인절가 / 144
배풀며 사랑하며 / 145
작디작은 사랑이라도 / 146
살기 좋은 내 고향 / 147
해같이 달같이 / 148

제3부 동요, 동시 편

공산당을 따르죠 / 151
제비야 노래 불러라 / 151
공산당을 노래 불러요 / 152
뜨락또르 / 153
아빠 엄마 모범이래요 / 154



우리 선생님 / 155
별은 웃어요 / 156
인공비가 좋아요 / 156
무엇일까요 / 157
선생님 가시는 길 밝게 비춰라 / 158
제가 할래요 / 159
산새들이 노래 불러요 / 160
어머니당이여, 고맙습니다 / 161
무슨 노래 부르나 / 163
까치엄마 놀랐지요 / 164
날 보고 조용히 타이릅니다 / 165
선생님 안녕하세요 / 166
까치 울더니 / 167
연아 올라라 / 168
누나보고 방긋방긋 / 169
사시절은 좋아요 / 170
우리 모두 한마음 / 171
풀씨채집 성수나요 / 172
모두다 부러워해요 / 173
나의 손은 보배손 / 174
제비야, 가지 말렴아 / 175
명절의 꽃다발 받으세요 / 176
귀뚜라미 / 177
겨울해님 / 178
비방울 / 179
우리는 21세기의 주인 / 180
선생님의 손풍금소리 / 184
눈길에 핀 꽃 / 185

성 쌓고 남은 돌도 쓸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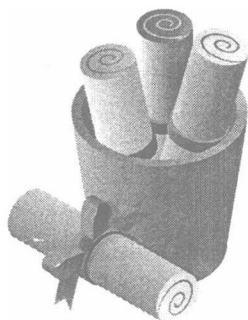
- 발자국 / 186
뢰봉아저씨 돌아왔어요 / 187
눈동자 / 188
개구리 / 189
초가집, 기와집, 아파트 / 190
안개엄마 / 191
빨강우산 노랑우산 / 192
겨울꽃 / 193
푸른 산 맑은 물 / 194
겨울밥상 / 195
아빠가 뽀는 연기 / 196

제4부 가요편

- 내 고향의 자랑 / 199
새 농촌 건설자 / 200
국경절 / 201
붉은 꽃 피었네 / 202
백양꽃 / 203
산간에 종소리 울려오며는 / 204
연변교육출판사 사가 / 205
내 고향 내 조국 / 206
내 삶의 기둥 / 207
울지 마라 민둥산아 / 208
두루미 날아왔어요 / 209
동생이 욕심나요 / 210

맺는말 / 211

제1부 수필편



· 기행수필 ·

옛 탐라국을 찾아서

삼다도라 불리우는 제주도의 그랜드호텔에 려장을 푼 것은 10월 1일 저녁 아홉시였다. 려로의 피곤을 풀려고 일찍 자리에 들었으나 보고싶고 오고싶던 곳에 왔다는 기쁨과 흥분에 젖어 좀체로 잠들수 없었다.

스케줄이 딱 짜이여 조금도 느장을 부릴수 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그날의 관광일정을 끝낼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 일행이 투숙한 호텔에서 멀지 않은 바다가에 있는 룡두암을 보러 갔다. 룡의 머리처럼 생긴 바위라고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라 한다.

인산인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 와보니 그야말로 사람의 바다였다. 그 바다를 이룬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사람이라는 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때마침 중국의 국경절휴가였으므로 사무원, 노동자들은 물론 머리에 흰서리 내린 로부부들, 중학생, 소학생들로 바다가는 붐비고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상해, 절강, 복건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소학생은 2천원, 어른들은 3천원이면 제주도관광을 할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남방사람들의 소비관념은 우리 연변사람들과 판판 달랐다. 생활수준이 연변보다 높아서일가? 관광에 쓰는 돈을 아까와하지 않고 구경도 하고 견식도 넓혀가니 그야말로 뽕도 따고 님도 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발뒤축에도 못 가니 가슴이 아플수 밖에...

그다음 발길을 돌린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다. 일출봉도

성 쌓고 남은 돌도 쓸모가 있다

장백산처럼 화산이 분출됐던 곳으로 분화구직경은 600미터나 된다 한다.

일출봉에 올라 해돋이를 구경하기가 별 멋이라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해돋이를 보지 못할바에야 그 가파로운 산꼭대기까지 험레벌떡 올라가선 뭣하랴. 나는 방향을 바꾸어 산옆으로 난 길을 따라 바다가로 내려가 바다돌도 줏고 해녀도 만나보았다.

12살때부터 해녀질했다는 70여세의 할머니가 바다가 해물집앞에서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팔고있었다. 바다에서 한생을 살아온 할머니, 해풍에 그을리고 소금물에 찌들어 우리고향 농촌할머니들보다 피부가 더 검고 주름살도 더 많았다.

바람, 돌, 너자가 많아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부른다는 말은 들었어도 삼무도라는 말은 금시초문이였다. 대문이 없고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다는것이다.

민속촌에 가보고서야 대문이 없는것이 아니라 기둥처럼 랑견에 나무를 세워놓고 직경이 10센치메터도 되나마나한 긴 나무를 가로질러놓으면 그것이 대문역할을 한다는것을 알았다. 긴 나무를 한대 가로질러놓으면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 두대면 주인이 일발에 나갔다는 뜻, 세대면 들어오지 말라는 뜻, 네대면 과부집이라는 뜻이란다.

변소는 돼지우리우에 건똥 들리게 지어놓았는데 돼지는 사람똥을 먹고 자란단다. 변소에는 나무막대를 하나 세워놓았는데 남자들이 똥을 눌 때 똥 먹으러 모여든 돼지들이 남자의 아래에 드리운것을 물어뜯가봐 그 막대기로 돼지를 쫓으면서 똥을 눈다는것이다.

사람똥을 먹고 자란 돼지는 똥돼지라고 하는데 그 고기맛이 유별나게 좋단다.

지금은 그런 변소도 없고 똥을 먹고 자란 돼지도 없지만

식당마다 제주도 뚝배기라는 메뉴가 붙어있는것을 보아 제주도 돼지고기가 맛있다는것만은 사실인가보다.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도 조금 맛을 보니 류달리 만문하고 고소하였다. 그러기에 서울의 식당들에서 가짜 제주도 돼지고기를 파는 실례도 있다고 하니 제주도 돼지고기가 얼마나 소문났겠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것 같다.

민속마을에는 또 등에 물허벅(네모난 광주리안에 병사리아구리모양의 물동이 같은것을 담아 등에 지고 물을 길는 도구-물이 출렁일가봐 병사리아구리처럼 아구리를 좁게 한것 같다)을 진 녀인조각상이 있다.

옛날 제주녀인들은 우리처럼 물동이를 머리에 인것이 아니라 등에 지고 물을 길었다. 물이 귀한 제주에서 물을 길 올라, 해녀로 바다에 나갈라 녀인들은 고생이 얼마나 막심했으랴. 그때나 지금이나 녀인들은 고생이 한가지인것 같다.

화산재로 뒤덮인 제주에는 비가 와도 잠간새에 다 땅속에 스며들어 발로 구르면 쿵쿵 웅글진 소리가 났다. 물이 귀한 제주에서는 하는수없이 비물을 항아리에 받아서 쓴다. 그래서인지 마당에는 항아리들이 줄느런히 늘어서있다.

화산재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제주 어디를 가나 돌담을 볼수 있는데 집둘레에도, 과수원둘레에도, 채마밭둘레에도 돌담을 둘러쌓은것을 볼수 있었다. 돌담이라야 구멍이 숭숭 뚫린 검은색화산석을 낮다랗게 차곡차곡 쌓아놓은것이였다. 나라도 건너뛰여 넘을수 있을것 같았다.

바람 많은 제주에서는 갈대와 억새풀을 지붕에 엮고 새끼줄로 뽕뽕뽕 동여매서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도록 되어있었다.

제주에는 전설도 많다. 탐라왕국의 발상지인 3성혈(三姓穴)의 전설을 들을수 있다.